

④ 역사 속 대형 인수합병

# 역사가 기록한 메이저간 빅딜 사례

## 미국계 회사가 굶직한 사건 많이 남겨 ... 국내는 'SKT+신세기' 합병

역사는 IT업계의 대형 인수합병으로 무엇을 꼽을까? 메이저 기업간 인수합병이야 당연히 화제가 되니 역사에 남겠지 만 맛있게 지나갔던 많은 합병은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을 모아보는 것도, 그 사건 이 IT업계 판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아보는 차원에서 의미 있을 듯하다.

글 | 임일곤 기자(아이티타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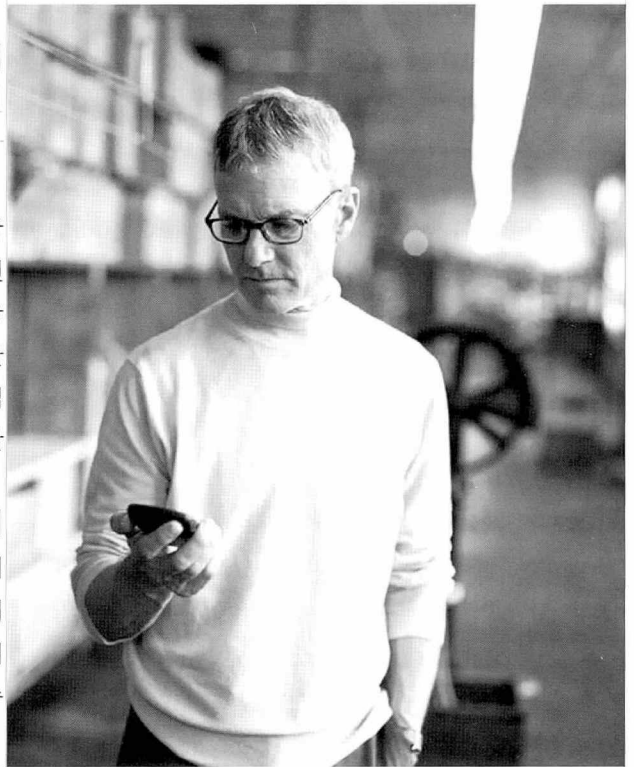
### 국내동향

국내 사건의 경우 뭐니뭐니해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꼽을 수 있다.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최종 합병은 2002년 1월이었지만, 양사는 지난 99년 12월 기업결합을 단행한 바 있다.

이 합병을 계기로 SK텔레콤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내 최대 서비스 사업자로 거듭났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간 합병에 비해 다소 무게는 떨어지지만 한통프리텔의 한국통신엠텔컴 인수도 큰 화제에 속한다. 이들이 합병에 서명한 것은 2000년이였다. 양사 합병은 국내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간 최초 합병이었으며, 공룡 SK텔레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형 사업자 탄생이라는 데 의의를 가졌다.

모토로라가 어필을 인수한 건 휴대폰 사업에서 빼놓을 수 있는 대형 M&A이다. 벤처 성공신화의 '수장'으로 여겨지던 어필텔레콤이 팔린 것을 두고 업계 의견은 분분했지만 국내 중견업체의 CDMA 기술이 세계 최대 휴대폰 제조업체인 모토로라마저 손을 내밀게 했다는 건 주목할 부분이었다.

2002년 진행된 팬택의 현대큐리텔 인수는 중견업체가 한 때 메이저였던 현대큐리텔을 흡수했다는 것이 화제였다. 어필텔레콤과 더불어 국내 벤처 신화를 이끌었던 팬택이 현대큐리텔을 인수하는 것으로 휴대폰 빅3에 포함되고자 하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 해외동향

벨사우스와 SBC간 무선사업 통합 발표는 2000년 4월에 있었고, 그 결실은 10월 맺어졌다. 이로 인해 탄생한 회사가 현재 미국의 1위 사업자인 싱골

러와이어리스이다.

싱글러와이어리스는 2004년 2월 AT&T와이어리스를 인수하는 것으로 미국내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간 최대 빅뱅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2위 이동전화 사업자인 싱글러가 3위 사업자 AT&T와이어리스를 인수하는 것으로 버라이즌와이어리스를 제치고 업계 선두가 된 것이다.

2004년 진행된 미국 이동통신 3위 사업자인 스프린트와 5위 넥스텔의 합병 발표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합병회사 명칭은 '스프린트 넥스텔'로 정해졌다. 이들과 '싱글러+AT&T'간 합병만큼이나 대형 빅딜이었다. 2004년 말 당시 스프린트는 미국에서 232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3위 업체이고, 넥스텔은 PTT(Push-to Talk) 방식 서비스를 내세워 168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했던 터라 양사 4000만명의 가입자는 미국내 싱글러 와이어리스 가입자 4700만명과 버라이즌와이어리스 가입자 4210만명에 이은 3위의 위치를 명확히 했다.

유럽으로 넘어가보면 프랑스텔레콤이 오렌지를 인수한 것을 대형 사건으로 들 수 있다. 시기는 2000년 6월이었다. 인수 금액은 432억 유로였다. 오렌지는 영국내 3G 면허를 획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프랑스 텔레콤은 자연스럽게 영국의 3세대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네덜란드의 대형 통신·전화회사인 KPN과 미국의 지역통신 대기업인 벨사우스가 독일 3위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였던 E플러스를 인수한 것(1999년 12월)과 유럽 최대의 통신업체인 도이치텔레콤이 영국의 이동전화 업계 4위인 원2원을 인수하는 한편 미국 케이블 TV 회사인 미디어원으로부터 중유럽·동유럽과 러시아의 이동전화 사업을 인수한 것(99년)도 유럽지역에서 통신 서비스 사업자간 중요한 인수합병이었다.

세계 휴대폰 업체간 인수 합병이라면 소니와 에릭슨간 합병과 벤큐와 지멘스간 합병을 들 수 있다. 소니가 에릭슨의 휴대폰 사업 부문을 인수해 소니에릭

싱글러와이어리스는 2004년 2월 AT&T와이어리스를 인수하는 것으로 미국내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간 최대 빅뱅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2위 이동전화 사업자인 싱글러가 3위 사업자 AT&T와이어리스를 인수하는 것으로 버라이즌와이어리스를 제치고 업계 선두가 된 것이다. 2004년 진행된 미국 이동통신 3위 사업자인 스프린트와 5위 넥스텔의 합병 발표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슨을 탄생시킨 것은 2001년 초였다. 2000년도 750만대의 이동전화를 판매해 세계 10위에도 들지 못한 소니는 당시 시장점유율 2위인 에릭슨(4300만대 판매)과 이동전화 합작사를 50대50의 지분으로 설립키로 했던 것.

지멘스가 대만 최대 규모의 휴대폰 제조업체인 벤큐(明基, [www.benq.com](http://www.benq.com))에 매각된 것은 올 6월이었다. 중국계 업체가 세계 휴대폰 시장의 전면에서 서기 시작한 것을 의외로 들 수 있다.

HP가 컴팩컴퓨터를 합병한 것도 단말 시장에서 벌어진 빅딜에 속한다. 2002년 4월 이들의 합병은 PC, 서버, 프린트, PDA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지도를 가진 기업간 이루어졌다는 데 화제가 됐다.

팜과 핸드스프링간 벌어진 2003년 6월 인수 사건도 굵직하다. 팜OS를 개발하는 팜소스와 팜솔루션그룹 등 2개사로 구성된 팜은 핸드스프링과 팜솔루션그룹을 합병해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다. PDA OS 시장을 주름잡던 팜이 PDA 단말 시장까지 강화하겠다는 야심이 인수원인이었다. [K]